

崔天若이 제작·감독한 조선 왕실 御寶 연구

제 지 현*

- I. 머리말
- II. 최천약의 王室 御寶 工役
- III. 최천약이 제작·감독한 御寶의 특징
- IV. 御寶 조형에 최천약(造成·看役人)이 미치는 영향
- V. 맺음말

I. 머리말

御寶는 조선 왕실 인물을 冊封하거나 尊號, 諡號 등을 올리며 만든 印章이다. 어보는 의례용 인장으로 捺印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조선시대에 꾸준히 제작되어 현재 300여 과가 넘게 남아 있다. 인장은 왕, 왕비, 대왕대비 등에게는 寶, 왕세자, 왕세자빈에게는 印이 수여되었다. 어보는 방형의 寶(印)身에 거북 형태의 손잡이 龜紐로 제작되었으며, 의례의 성격과 수여 받는 인사의 위계에 따라 金과 玉 등으로 재질을 다르게 제작했다.

조선 왕실의 어보는 인장 손잡이의 거북 형태가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 그중 18세기 전반은 어보의 조형이 가장 뛰어난 시기로 이때 제작된 어보는 이전과 다른 조형성을 보이며, 이후 조선시대 말기까지 어보 조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이러한 18세기 전반 어보의 변화를 이끌었던 인물이 崔天若이다. 최천약은 40년 동안 왕실 공역에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특히 어보를 제작하는 공역에 연이어서 참여해 어보를 통해 그의 작품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어보를 제작했던 도감은 31회가 설치되었는데, 그중 초반에 金寶를 제작했던 도감을 제외하고 24회 참여하였다(표 8). 활동 전반기에는 옥보를 직접 조각했고 후반기에는 어보 제작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시대 어보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인물 중 이렇게 오랜 기간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천약은 어보 造成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최천약의 생애와 왕실 공역에 대한 다양한 원문 자료들을 검토하고, 최천약이 참여한 어보의 공역을 직접 제작한 시기와 감독한 시기로 나누어 변화를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최천약이 제작·감독한 어보의 특징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 시기에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임시직인 어보 ‘造成人’과 ‘看役人’이 어보 조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최천약의 王室 御寶 工役

최천약(1684~1755년경)¹은 경상도 東萊 출신의 武人으로 약 40년간 왕실 공역에 참여하면서 御寶, 王陵과 園墓의 석물, 악기, 자명종, 천문기기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제작을 감독한 사람이다.²

왕실 공역에서는 최천약이 1713년 玉寶를 만드는 사람으로 처음 기록되어있다.³ 이후

¹ 최천약의 생몰년은 기록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承政院日記』에 최천약이 70세가 넘었음에도 활을 5발을 쏘면 4발이 명중한다는 기록과(『承政院日記』 원본 1098책, 英祖 29년(1753) 9월 17일 “備忘記, 傳于趙明鼎曰, 前僉使 崔天若, 年過七十, 能爲四中, 特爲加資.”) 1755년 최천약이 나라의 役事에 수없이 참여했는데 사망하니 안타깝다는 기록(『承政院日記』 원본 1120책, 英祖 31년(1755) 6월 19일 “...上曰, 崔天若, 於國事頗勤矣, 其死可惜矣.”)을 통해 대강의 생몰년을 알 수 있다.

² 최천약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진홍섭, 『목재문화』(대원사, 1999), pp. 305-313; 안대회, 『영조시대 기술자 최천약』, 『문헌과 해석』, Vol.37(2006); 同著, 『자명종 제작에 삶을 던진 천재 기술자』, 『벽광나치오』(휴머니스트, 2011), pp. 211-249; 최완수, 『진경시대의 문화』, 『간송문화』82호(2012. 5), pp. 124-127; 김민규, 『조선 18세기 조각가 최천약(崔天若) 연구』, 『문화재』Vol.46 No.1(2013); 제지현, 『朝鮮時代 17-18世紀 王室 御寶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pp. 49-57; 이종봉, 『조선후기 東萊人 崔天若의 생애와 과학기술』, 『지역과 역사』 제43호(2018.10).

³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二房儀軌, 工匠秩 “...玉寶造成時別爲赴役人 習讀官金繼興, 訓練都監旗牌官李慶夏, 禁衛營別軍官白奎燦, 武人閑良崔天若.”

1730년에는 冬至兼謝恩使 放料軍官으로 燕京 사행에 참가하여 벽돌과 청기와를 만드는 방법을 익혀왔고, 1731년에는 인조 장릉의 병풍석을 제작, 1739년에는 단경왕후의 온릉 석물의 監董, 1740년에는 기준척을 만들고, 1741년에는 침구 연습용 동인, 종묘 악기 조성, 개성 표충비의 건립을 담당, 1752년에는 의소세손묘 석물 감동, 1753년 소령원 석물 감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제작했다.⁴ 또 그는 전투에 사용하는 무기인 火器를 만들기도 했으며, 자명종 제작에 탁월한 솜씨를 보이기도 했다.⁵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최천약은 특히 어보의 제작이 기록된 의궤에서 이름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다. 최천약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의궤는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13)로 이 도감은 肅宗(재위 1674~1720)의 즉위 40년을 기념해 숙종과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의 옥보와 玉冊을 제작했다. 당시에 옥보를 제작할 수 있는 장인은 늙은 玉匠 한 명뿐이어서 4과의 옥보를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⁶ 그래서 習讀 金繼興, 楊州 庶孽 柳明教, 楊州 德寺(興國寺), 僧 聖聰이 옥을 다룰 수 있다고 하여 부르면서 東萊 武人 崔天若은 더욱 재주가 있으니 불러 옥보를 제작하게 했다.⁷

이후 1718년 단의빈의 예장도감에서는 玉印을 제작해야 하는데 이 일이 가장 어려워 실력이 평범한 장인에게 맡기면 옥이 다치고 상하거나 연마한 후에 허물이 생기니 1713년에 이를 담당한 사람을 데려와 공역을 시키자고 하며 최천약을 불렀다.⁸

최천약은 옥보를 제작하는 역사에서 꾸준히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천약을 기록하기를 “옥인 조각의 善手人”⁹, “거북의 몸체와 篆文을 잘 새기는 사람”¹⁰, “조각의 妙手”라고 언

⁴ 최천약이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는 김민규, 앞의 논문 참고.

⁵ 안대회, 앞의 책(2011), pp. 228-237.

⁶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二房儀軌, 癸巳(1713) 정월 22일 “一本房專管, 玉寶, 而前案付玉匠, 皆已作故, 而只有一名是乎矣. 老病既甚, 有難使役是如乎...”

⁷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二房儀軌, 癸巳(1713) 정월 22일 “...卽聞習讀 金繼興, 楊州 居庶孽 柳明教, 楊州 德寺 僧人 聖聰, 俱善於治玉之工是如爲臥乎所, 柳明教 聖聰, 發關 畿營, 使之起送爲乎矣, 金繼興 柳明教 段, 異於匠人, 使之往來看役爲乎旆, 東萊 武人 崔天若, 尤善於玉工云...”

⁸ 『端懿嬪禮葬都監儀軌』上, 戊戌(1718) 4월 23일 “...自前都監事, 役中玉寶雕琢最難, 若付之於尋常玉匠, 則方琢之際, 或傷缺而棄之, 既鍊之後, 或瑕見而棄之, 以此工役每患窘急 癸巳年 尊崇都監 玉寶造成時, 軍門將校中, 有善於雕琢者, 招致付役, 今番玉印造成期日促迫, 比前尤爲窘速, 癸巳年玉寶雕琢造成之人, 亦爲招來付役, 得以趁期工. 其功勞不少...”

⁹ 『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下, 三房儀軌, 戊戌(1718) 8월 22일 “...又聞玉印雕刻善手人 崔天若, 曾前都監時, 捉來付役是如云云...”

¹⁰ 『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下, 三房儀軌, 戊戌(1718) 윤8월 13일 “...而龜體及篆文善刻人 崔天若, 時在東萊府, 未及上來是乎所...”

급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국가의 크고 작은 일에 조각을 맡아왔다”고 했다.¹¹ “옥을 다루는데 가장 뛰어나”¹², “그가 없이는 옥보를 훌륭하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¹³

한편 玉匠들과 최천약을 비교하길 “옥보는 거북을 조각하는 역이 본래 중대한데 옥장의手段은 졸렬하여 모양이나 형식을 갖추기가 어렵고”¹⁴, 또한 “옥장들은 옥을 단지 연마할 줄만 알고 寶文을 조각하는 것을 할 줄 모른다”며 “이전의 역사에서 최천약이 名人이라 하니 역사를 맡겨야 한다”는 기록들도 있다.¹⁵ 옥장들도 스스로 “최천약이 없으면 옥보의 모양을 만들 어내기 어렵다”고 해 최천약의 조각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최천약은 활동 전반기에 당시 옥장보다 뛰어난 조각 실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옥보는 손잡이의 거북 조각도 중요하지만 보문의 조각 또한 중요하였으므로 둘 다를 모두 조각할 수 있었던 최천약의 실력을 명인이라 칭하며 기록된 점은 주목할만하다.

실제로 최천약은 옥보 조각에 있어 재료와 사용 도구에 관한 이해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옥보는 당시 가장 품질이 좋은 남양옥을 채취해 연마하여 조각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¹⁷ 이때 국산 碇玉沙와 중국산 唐碇玉沙를 사용하는데, 처음 옥을 채취해 치석할 때는 국산 정옥사를 사용하고 거북의 형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정밀한 取色할 때는 당정옥사를 사용한다.¹⁸ 특히 거북의 눈썹과 눈, 등의 문양 등을 조각할 때는 당정옥사가 아니면 형태를 얻을 수

^[1]
^[11]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上, 冊禮都監都廳儀軌, 乙巳(1725) 3월 22일 “…而閑良崔天若, 素稱雕刻妙手, 故前後國家大小雕刻之役, 皆爲擔當矣.”

^[12] 『景宗端懿王后祔廟都監儀軌』, 二房儀軌, 丙午(1726) 6월 일 “本都監玉寶篆刻之役, 不啻尋常, 而御營廳別抄軍官崔天若, 治玉最善是如乎, 聞因他事, 下往本營是如爲臥乎所…”

^[13] 『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上, 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癸亥(1744) 11월 초5일 “…今番都監玉印等役, 無崔天若, 則難以善成…”

^[14]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下, 三房儀軌, 丁未(1727) 8월 23일 “本房所掌玉印, 今當造成, 而龜紋雕刻之役, 本來重大, 所謂玉匠手段拙劣, 難以成樣…”

^[15]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二房儀軌, 壬寅(1722) 8월 일 “…玉寶造成之役, 一時爲急, 而玉匠則只知琢磨, 不知其篆字雕刻之工是如乎, 取考膽錄, 則上年 冊禮教是時, 崔天若爲名人, 自都監別爲定奪, 給料布 看檢爲有置. 若無此人, 則玉匠等皆言, 生事可慮是如爲臥乎所, 卽今本廳軍官云, 到關卽時, 四處搜尋, 星火起送, 俾無莫重大事遲延更催之弊, 宜當向事…”

^[16]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二房儀軌, 壬寅(1722) 4월 일 “…玉寶雕刻之役, 不比尋常, 玉匠等言內, 若無 崔天若, 則決難成樣云.”

^[17] 제지현, 앞의 논문, pp. 31-32.

^[18]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下, 稟目秩, 壬申(1752) 3월 초4일 “本房所掌 謚玉印琢磨之役, 尤爲緊急, 初鍊則例用常碇玉沙, 而龜形既成之後, 則非唐碇玉沙, 決不能取色, 精艷亦費多日, 同唐碇玉沙一升, 依膽錄上下, 以爲及時造成之地, 何如? 堂上手決內.”

없다고 한다.¹⁹ 최천약은 당정옥사만이 옥의 고운 색을 낼 수 있다는 쓰임을 알고²⁰ 매번 당정옥사를 도감에 요청했는데 당정옥사를 구비해 두는 관청이 없을 경우 平市署에서 대신 구매하거나²¹ 戶曹에서 값을 대신 치러주고 물건을 사서 쓰기도 하였다.²²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천약은 연이어 옥보를 제작했는데, 그가 지방 무관직을 수행하고 있어 서울에 없으면 각지에 연락을 보내 행사 일정에 맞춰 儀物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경종과 선의왕후의 가례도감에서 선의왕후의 玉印을 만들기 위해 최천약을 불렀는데 그가 동래부에 있는지 전라감영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두 곳에 모두 移文하는 것이 어땠겠냐는 기록이 있다.²³ 또 효장세자 가례도감에서는 최천약이 역을 연이어 담당하다 평안감영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면 옥인을 조성할 수 없으니 평안감영에 이문하여 최천약에게 말을 주어 급히 올라오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²⁴

또 행사의 날짜에 맞춰 최천약을 밤새 起送하는 일도 있었다.²⁵ 옥인을 조성할 때 최천약이 평양에 있으므로 말을 보내 급히 上送하는데 길일로 예정된 날짜가 9월 29일이어서 최천약이 늦어도 9월 6일까지 도착할 수 있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

^[1]
^[19] 『思悼世子冊禮都監儀軌』, 二房儀軌, 稟目秩, 丙辰(1736) 정월 27일 “玉印一顆, 今方龜體始役而 眉目背紋等雕刻處段, 若非唐錠玉沙, 則不得刻出是如爲有臥乎所, 唐錠玉沙一外依 膽錄進排事捧甘何如. 堂上手決內依.”

^[20]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下, 三房儀軌, 辛未(1751) 11월 일 “本房所掌, 謚玉印治玉所入, 唐碇玉沙, 戊戌膽錄, 無之, 故不爲磨鍊矣. 今聞崔天若所言, 則龜形琢磨正鍊之時, 若非唐碇玉沙, 決不可艷取色是如爲臥乎所, 印龜體形, 今旣出本, 同唐碇玉沙一升, 急速進排, 以爲及時鍊色之地, 何如? 堂上手決內, 依稟.”

^[21]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二房儀軌, 壬寅(1722) 4월 일 “…玉寶造成所用唐碇玉沙, 問于崔天若, 則所入之數, 唐碇玉沙末一升是如爲臥乎所, 玉沙有處訪問, 各司終無所在處是乎所, 同碇玉沙末, 急速貿用事, 平市署良中, 分付, 何如? 堂上手決內, 依.”

^[22]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下, 三房儀軌, 丁未(1727) 9월 21일 “…天若言內, 今番玉役, 日字急迫, 以五合勢難及期完了, 限一升, 辦備亦爲臥乎所, 如有戶曹所儲者, 則斯速進排是去乃, 若無則自戶曹推移貿送, 以爲及時完役之地, 何如? 堂上手決內, 戶曹若無遺儲, 則使匠人貿用, 五合價本, 自都廳上下.”

^[23] 『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戊戌(1718) 8월 22일 “…而天若, 或云東萊府下去, 或云全羅監營下去是如爲臥乎所, 移文兩處? 以爲及時現身之地, 何如. 堂上手決內, 依.”

^[24]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下, 三房儀軌, 丁未(1727) 8월 23일 “…善刻人崔天若, 近年此役, 連爲擔當是如可, 今方下往平安監營云, 而今番段置, 若非此人, 則勢難及期造成是如爲臥乎所, 同崔天若身乙, 斯速給馬上送事, 移文平安監營, 何如? 堂上手決內, 依.”

^[25] 『景宗端懿王后祔廟都監儀軌』, 二房儀軌, 丙午(1726) 6월 일 “…今此寶篆雕刻之役, 萬分緊急, 上項崔天若, 罔夜起送, 俾無未及生事之弊向事…”

다.²⁶ 따라서 최천약이 옥보를 만들기 위해 대략 23일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옥보를 만들고 나서 의례를 시작하기 전 예행연습을 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옥보는 20일 안쪽으로 제작을 완성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최천약이 시간 내에 도감에 도착하지 못하면 관련자들을 징계하였다. 인원왕후와 선의왕후의 존숭도감에서는 경상감사에게 옥보를 전각하는 일이 아주 급하니 최천약을 올려보내라 했는데, 한 달 남짓 소식이 없자 최천약을 업신여기고 국가의 막중한 역을 태만하게 여긴다 하여 관련자들을 매를 때리고 담당자들을 가두는 등의 징계를 내렸다.²⁷

의궤에서 최천약은 공역에 참여한 장인들과는 별도로 都監別單에 이름이 기록되어있는데, 최천약은 무인으로 관직의 유무를 떠나 스스로 장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1718년 단의빈의 옥인을 조각한 공로로 論賞을 할 때, 도감에서 최천약은 工匠의 무리에 섞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書啓 중 거론되지 않아도 賞典이 있어야 한다고 아뢰자 왕이 別單으로 써서 들이라고 이르렀다.²⁸ 1721년 왕세제책례도감에서는 최천약이 특별히 옥인 조각에 공이 있는데도 匠手의 무리가 아니라 工匠 명단에 쓰지 못했고,²⁹ 1722년 옥보를 제작했을 때에도 최천약에 대해 별도로 논상해야하는데 이전 책례도감 전례에 의거해 別單에 이름을 기록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왕실에서는 최천약을

^[1]
^[2]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上, 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儀軌, 丁未(1727) 8월 29일 “今番嘉禮時, 玉役最急, 故崔天若給馬上送之意, 才已發關分付爲有在果, 嘉禮吉日已定於來九月二十九日爲有置. 崔天若必於來初六日內上送, 然後可以 及期玉役是乎等以, 更爲發關爲去乎, 到關即時給馬, 罔晝夜上來, 限內現身之意, 嚴明分付, 俾無一刻遲滯生事之弊向事.”

^[3] 『仁元王后宣懿王后尊崇都監儀軌』, 二房儀軌, 丙午(1726) 8월 일 “爲相考事, 本都監玉寶篆刻之役一時爲急, 故崔天若上送事, 前後行關者不啻一再, 而至有給馬上送之事是去乙. 已涉月餘, 終無消息, 乃使莫重國役將未免狼狽之患, 揆以事體, 實爲寒心. 而所謂天若者, 么麼一漢蔑視, 國家莫重莫大之役, 慢不動念, 如此無嚴蔑法之類, 不可無懲治之道, 自本營各別重棍後, 囚次知, 罔晝夜起送, 俾無 未及生梗之弊向事.”

^[4] 『端懿嬪禮葬都監儀軌』上, 禮葬都監都廳儀軌, 戊戌(1718) 4월 23일 “…而渠之恥與工匠爲伍 與前無異, 書啓中, 雖不舉論, 而終不可無賞典. 何以爲之? 敢稟. 傳曰, 別單書入. 別單 玉印造成人 東萊武人閑良 崔天若.”

^[5] 『承政院日記』원본 534책, 景宗 1년(1721) 10월 3일 “金致龍, 以冊禮都監卽廳, 以都提調意啓曰, 冊禮都監都提調以下, 正副使以下及員役工匠, 竝書啓事, 傳教矣. 都監都提調以下及正副使以下諸執事, 別單開錄以入, 而員役工匠等, 亦爲書入, 而閑良崔天若, 素稱雕刻妙手, 故自前都監, 凡有彫役, 皆爲擔當矣. 今番玉印彫刻時, 亦當其役, 而以非匠手之類, 不得竝爲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6] 『承政院日記』원본 544책, 景宗 2년(1722) 9월 10일 “朴熙晉, 以冊禮都監卽廳, 以都提調意啓曰, 自前都監使役中, 玉寶雕琢, 最難, 若付之於尋常玉匠, 則方琢之際,

일반 장인이 아닌 무인으로 구분해 공역에 임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최천약은 왕실 공역에 무인으로 참여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당시 장인들과 다르게 관직과 품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29년 折衝, 1744년 僉使, 1753년 蒜山別將 등의 관직을 제수받았고 품계는 1739년 嘉善大夫, 1740년 嘉義大夫를 거쳐(표 8) 최종으로 정 2품 資憲大夫까지 올랐다.³¹ 1726년 英祖(재위 1724~1776)는 최천약이 癸巳年(1713)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연달아 역을 담당했으므로 특별히 加資를 명했고³², 1753년에는 40여 년간 옥보를 조성한 공이 인정되어 영원히 급료를 받게 되었다.³³

Ⅲ. 최천약이 제작·감독한 御寶의 특징

최천약은 1713년부터 1753년까지 약 40년 동안 어보 제작에 참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옥보를 직접 조각하다가 1720년대 후반부터는 어보의 제작을 감독한 것으로 추정한다. 의궤에 기록되는 직급의 명칭도 초반에는 玉寶造成人, 玉印造成人, 雕琢篆刻人, 玉寶篆刻別抄 등으로 직접 조각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1735년 이후에는 玉印看刻人, 玉冊玉寶完造人, 玉印竹冊看役人, 玉印竹冊看檢人, 玉寶看造人, 玉印竹冊別看役人, 玉冊金寶別看役 등 감독을 의미하는 간역으로 기록되는 차이가 있다(표 8). 따라서 전반기에 직접 제작을 한 시기는 造成人으로, 후반기에 감독한 시기를 看役人으로 지칭하고 자 한다.

^[7]
^[8] “或傷缺而棄之, 旣鍊之後, 瑕見而棄之, 以此工役, 每患窘急, 故毋論軍門將校與閑散, 善於玉刻者, 招致付役, 已有前例矣. 今番各殿玉寶雕琢時, 前日使役武人崔天若招致, 使之付役, 而渠以曾任將校之故, 恥與工匠爲伍, 既不受料布, 又不欲混入書啓中, 不可無別爲論賞之道, 故自前別單書入於賞矣. 今亦依前例,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9] 『承政院日記』원본 1082책, 英祖 28년(1752) 5월 17일 “…前僉使崔天若, 今加資憲, 以上今番三都監加資事, 承傳 東陽君櫛, 今加承憲, 內官金以載, 今加嘉善, 以上守侍墓官, 加資事, 承傳 柳脩爲承文正字, 月城尉金漢蓋, 在喪終制.”

^[10] 『仁元王后宣懿王后尊崇都監儀軌』, 啓辭秩, 丙午(1726) 11월 초1일 “傳曰, 玉寶篆刻武人 崔天若, 自癸巳 先朝上尊號時, 至于今日, 國有大禮, 連爲來役, 不可無別爲賞功之道, 特爲加資.”

^[11] 『承政院日記』원본 1101책, 英祖 29년(1753) 12월 27일 “看役人 崔天若, 昔癸巳年, 始看此役, 于今癸年, 又看此役, 人雖微矣, 其宜厚賞, 令該曹邊將遞來後, 永付其料, 其餘看役武人, 弓矢賜給.”

1. 직접 제작

최천약은 1713년 처음 역사를 담당한 이후 1718년부터 1735년까지 혼자 조성인으로 참여했다. 1718년은 단의빈의 예장, 민회빈의 복위, 경종과 선의왕후의 가례로 여러 과의 옥보가 만들어졌는데 단의빈의 옥인은 최천약, 민회빈의 옥인은 盧起俊, 선의왕후의 옥인은 李景夏가 제작하였다(표 8). 이때 노기준과 이경하가 옥인을 제작한 것은 최천약이 시간 내에 도감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³⁴ 1713년 최천약이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 제작한 <숙종 옥보>(도 1)와 1718년 최천약이 제작한 <경종비 단의왕후 옥인>(도 2), 이경하가 제작한 <경종비 선의왕후 옥인>(도 3)을 비교해보면 1718년 최천약의 작품에 귀갑 장식, 안면의 귀, 몸통 장식이 표현되지 않아 최천약의 어보 조형이 이때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보를 제작하기 전에는 見樣으로 모형을 제작하거나 그림으로 옥보의 형태를 먼저 그린다.³⁵ <경종비 선의왕후 옥인>을 제작한 이경하는 어보를 제작하기 전 거북의 몸체를 본떠 그리는 것으로 당시 이미 유명했는데³⁶ <경종비 선의왕후 옥인>과 1713년에 제작된 옥보가 유사한 조형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여 1713년 존숭도감의 옥보 4과는 이경하의 도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표 1).³⁷ 민회빈의 옥인은 남아있지 않지만 제작을 기록한 의궤에 옥인을 제작하기 전 도안을 이경하, 노기준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³⁸ 민회빈의 옥인 또한 이경하가 제작하기 전 도안으로 먼저 그리고 조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³⁴ 『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下, 三房儀軌, 戊戌(1718) 윤8월 13일

“一本房所掌玉印, 今方出本, 而龜體及篆文善刻人崔天若, 時在東萊府, 未及上來是乎所, 卽開訓鍊都監 教鍊官 盧起俊 李景夏兩人, 亦爲熟諳, 曾前都監時, 已經此事云. 今番段置, 依前定途, 以爲及時看刻之地事, 移文訓鍊都監, 何如? 堂上手決內, 依.”

³⁵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上, 啓辭秩, 辛未(1751) 12월 초5일

“…玉印體樣, 取考前後見樣, 則丁未嘉禮及乙卯年賢嬪賜號時玉印, 則體樣相同, 而今番, 則當依戊戌例, 故以戊戌見樣見之, 則與嘉禮及賜號時, 印樣大小不同, 更考戊申見樣, 則亦如戊戌體樣. 今則當以何樣, 造出乎? 上曰戊戌, 戊申則乃是謚印, 故體樣大小之不同者, 如此矣, 依戊戌例造成可也.”

³⁶ 『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下, 三房儀軌, 戊戌(1718) 윤8월 13일

“一玉印龜體模畫人李景夏, 昨已來現…”

³⁷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下, 二房儀軌, 庚申(1740) 윤6월 28일

“…大殿實定玉寶, 幾盡鍊正, 而龜前足兩邊, 忽生欠處, 故事勢急迫, 爲先他玉塊, 以一牌募軍, 達夜引鉅爲有跡, 預差中一類, 亦以玉匠四名, 達宵治玉, 而玉匠及募軍明火次牛脂二升, 旣已取用, 緣由, 稟 堂上手決內, 依.”

³⁸ 『愍懷嬪復位宣諡都監儀軌』, 三房儀軌, 戊戌(1718) 4월 27일

“…諡玉印 篆刻與起畫之役萬分緊急, 若無善手者 則決難造成是乎所. 貴都監旗牌官李景夏 別武士盧起俊 星火起送以爲及期董役之地向事.”

〈표 1〉 造成인에 따른 옥보 양식 변화

造成人	玉寶造成人 金繼興, 李慶夏, 白奎燦, 崔天若	玉印造成人崔天若	玉印看刻人李景夏
玉匠	李起致, 李呂奉, 李以進, 李允石, 李近石, 劉守成, 金次建, 朴北間	方良說, 金泰徵, 崔後泰, 金振江	金太徵, 金以宗, 崔厚太
사진			
	도 1 <숙종 옥보>, 1713년, 옥, 전체 높이 11.1cm, 국립고궁박물관	도 2 <경종비 단의왕후 옥인>, 1718년, 옥, 전체 높이 8.5cm, 국립고궁박물관	도 3 <경종비 선의왕후 옥인>, 1718년, 옥, 전체 높이 9.2cm, 국립고궁박물관

한편 최천약이 제작한 옥보는 1721년 <영조 옥인>과 <영조비 정성왕후 옥인>에서 다시 장식 요소가 늘어났다. 1722년 <숙종비 인경왕후 옥보>(도 4)는 앞서 1718년 <경종비 단의왕후 옥인>(도 2)에서 보인 것처럼 장식 요소가 사라진 옥보의 형태로 자리를 잡는다. 전반기에 양식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장식 요소가 가감되기는 하지만 장식이 없는 몸통, 3단의 귀갑 표현, 이마와 콧등 사이를 깊게 조각하여 코를 부각시키고 콧망울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조형 요소가 이어져 왔다.

이후 최천약의 전반기 양식은 1722년 <숙종비 인경왕후 옥보>(도 4)와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면의 눈썹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눈을 깊게 조각해 이마와 코를 돌출되게 조각했으며, 눈동자를 표현하기 위해 눈꺼풀과 양쪽으로 둥근 선을 새겼다. 콧등을 높게 표현하고 코 양쪽으로 선을 조각하여 콧망울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두 줄의 선으로 입술을 ‘스’자 형태로 새겨 볼을 따라 얼굴 안쪽까지 조각했다. 앞니는 가지런하게 조각하고 양쪽에 송곳니를 표현했다(표 4의 도 4 세부). 목에는 목주름을 여러 겹으로 표현하고 몸통은 장식이 없이 매끈하게 연마했으며, 귀갑은 배갑을 조각해 테두리와 구분하였다(도 4). 이러

한 특징은 최천약의 전반기 작품인 <숙종비 인현왕후 옥보>(1722),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1726), <경종비 단의왕후 옥보>(1726)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표 2 〉 최천약이 제작·감독한 옥보 양식

	전반기-최천약제작	후반기-최천약감독	
造成·看役人	雕琢篆刻人崔天若	玉印看刻人崔天若	玉册玉寶完造人崔天若, 卞爾珍
玉匠	金太澄, 金永甲	姜益濟, 李汝鳳	李呂奉, 金德奉, 李奉世, 李有培
사진			
	도4 <숙종비 인경왕후 옥보>, 1722년, 옥, 전체 높이 10.4cm, 국립고궁박물관	도5 <진종비 효순왕후 옥인>, 1735년, 옥, 전체 높이 8.3cm, 국립고궁박물관	도6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1739년, 옥, 전체 높이 10.2cm, 국립고궁박물관

2. 제작 감독

최천약은 1720년대 후반부터 어보의 제작을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데 1726년 경종과 단의왕후의 부묘도감에서 최천약이 이전 도감에서 장인을 지휘했다고 하며³⁹, 1730년 선의왕후의 국장도감에서도 이전 도감에서 최천약이 옥책과 금보를 조각할 때 장인을 지휘해 그 공역이 완성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⁰

최천약이 처음 ‘玉印看刻人’으로 기록된 1735년 옥인조성도감에서 제작한 <진종비 효순왕후 옥인>(도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천약이 제작을 감독할 때는 전반기 양식에서 변화

가 보인다. 이전 양식에 비해 장식 요소가 조금 더 생략되고 거북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아졌다. 거북의 옆부분이 줄어들어 귀갑이 상대적으로 솟아보이는 상승감이 생겼다. 귀갑의 크기가 이전에 비해 작아져 등 전체를 덮었던 전반기 양식과 비교해 등에 얹혀 있는 형태를 보인다(도 4, 도 6 비교). 또 목이 짧아졌으며 눈썹이 원형으로 변화하고 눈썹 안의 음각선도 사라졌다. 일부 장식 요소가 변화하기는 했으나 배갑의 표현, 장식이 없는 몸통, 이마와 코를 부각하고 깊게 조각한 눈 등에서 최천약의 양식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표 4의 도 6 세부).

이는 <장조 옥인>(1736),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1739)(도 6), <영조비 정성왕후 옥보>(1740), <영조 옥보>(1752) 등 최천약이 감독한 시기 제작된 옥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도 7 개성 <표충사 비석> 귀부, 1741년(사진: 김민규)

옥보 이외에도 최천약은 1741년 개성의 <표충사 비석>(도 7)의 제작을 직접 감독했는데⁴¹ 비석의 귀부 형태를 보면 당시 최천약이 제작 감독을 했던 옥보와 거북의 형태가 유사하여 최천약의 거북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함께 협업하는 간역인들도 등장한다. 1736년 사도세자 책례도감에서는 최천약이 처음으로 卞爾珍과 함께 어보 제작을 감독하는데 변이진 또한 옥인의 거북 문양을 조각하는데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⁴² 이후에는 玄德龍, 金夏鼎, 房應文, 崔鎮崗 등의 간역인들과 함께 어보와 어책의 제작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표 8).

또 주목되는 것은 최천약이 1730년부터는 금보의 제작 또한 감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왕실에서 제작하는 어보는 의례의 성격에 따라 금보와 옥보(인)가 제작되는데 옥보는 연마와 조각을 통해 조형이 완성되지만 금보는 밀랍주조, 수은아말감기법으로 완성되기 때문

³⁹ 『景宗端懿王后祔廟都監儀軌』, 二房儀軌, 丙午(1726) 5월 29일

“一本房所掌玉寶琢磨雕刻之役, 不啻尋常, 故曾前段置, 必以崔天若爲名人, 指揮匠手, 篆刻爲有如何…”

⁴⁰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下, 三房儀軌, 庚戌(1730) 8월 초 4일

“…在前國恤教是時, 崔天若招致都監, 玉册金寶入刻時, 指揮匠手, 以爲完役是如何, 限完役間, 分付起送向事.”

⁴¹ 『承政院日記』 원본 930책, 英祖 17년(1741) 4월 13일

“備忘記, 傳于趙明履日, 善竹橋暨碑時, 監董留守金若魯, 熟馬一匹, 經歷韓鳳朝, 兒馬一匹賜給, 都監前僉使車復運, 僉使除授, 監官前司果韓興周·白受潤, 竝邊將除授, 前僉使崔天若, 弓矢賜給…”

⁴² 『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稟目秩, 癸亥(1743) 11월 초 6일

“…玉印龜文雕刻善手人下爾振方在平安監營云 斯速給馬倍道上送之意亦爲移文何如?”

에 기본적으로 금속에 대한 이해가 있는 金寶匠들이 맡아서 조형을 완성했다.⁴³ 1713년 처음 활동한 이후 옥보의 제작만을 담당하던 최천약이 금보의 제작을 감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금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1747년 인원왕후 존숭도감에서는 어보를 담은 금속함인 寶筒과 인주를 담은 금속함 朱筒의 구조를 개선해 제작했다. 이전 도감에서는 동을 녹여 전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솜씨가 좋은 장인이라 해도 4~5차례 고쳐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도 맞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천약과 변이진이 상의해 5편으로 보통을 주조하여 만들고 모서리를 땀질하여 조성하는 방법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다.⁴⁴ 따라서 기존에 동을 녹여 주물을 만들던 방식에서 판을 따로 주조해 모서리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만큼 최천약은 금속에 관련된 지식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제작된 금보는 1683년에 제작된 <태조 금보>(도 8)와 같은 형태가 계승되면서 형식화되는데 그 이유는 장인의 운영방식에서 기인한다. 금보장은 主匠과 副匠으로 연결되어 함께 금보를 제작하다가 주장의 활동이 끝나면 부장이 주장이 되어 활동하고 새로운 부장을 선발하여 국가의 역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보수성으로 인해 금보는 주장 개인의 양식이 두드러지는 조형이 나타난다.⁴⁵

그러나 최천약이 금보의 감독을 시작한 이후 최천약의 옥보 양식과 금보가 동일하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39년 <중종비 단경왕후 금보>(도 9)는 둥근 눈썹과 눈꺼풀, 눈동자를 조각해 눈에 생기를 불어넣고, 이마와 콧등 사이를 깊게 파 코를 부각하고 콧망울을 조각하였으며, 귀갑을 얇은 선으로 3단 구획하는 방법 등 최천약이 감독한 옥보 양식과 동일하다. 다만 정으로 쪼아 질감을 표현하는 몸통과 귀갑이 옥보와 다른 금보만의 특징인데 이는 다른 재질에 따른 장식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표 3).





⁴³ 제지현, 앞의 논문, pp.30-31.

⁴⁴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下, 二房儀軌, 丁卯(1747) 2월 초3일

“丁卯二月初三日 本房所掌寶朱筒鑄成, 其中最難, 在前都監時, 銷銅爲水鑄成全體之故, 完成未易. 雖善手匠人, 至於四五次改鑄, 猶患不合, 而其時則日字稍遠, 故經營董鑄是如爲臥乎所, 庚申則崔天若 卞爾珍相議, 鑄成五片, 合爲全體, 一如木器之造作, 其爲便易, 有不可勝言是如乎, 但八隅合之時, 必有汗音銀, 然後可以完成是如爲乎矣, 此則不載於騰錄是乎等以, 與卞爾珍招致匠人, 同汗音銀所入之數, 十分商確, 則二筒所入, 乃爲三兩五錢是如爲去乎, 兩筒改鑄, 則非但鐵物漸縮, 一次炭入, 亦至於五六石之多. 四五次計之, 則其數夥然能不言而喻, 今則日字急迫, 恐有未及之慮, 如是仰稟, 參量, 處分, 何如? 堂上手決內, 庚申例若此, 則以此磨鍊.”

⁴⁵ 제지현, 위의 논문, pp.35-41, 68-80.

〈 표 3 〉 看役人에 따른 금보 양식 변화






看役人	없음	謚册玉册金寶完造人 崔天若, 卞爾徵
寶匠	朴守英, 朴成建	李弘成, 朴泰亨
사진		
		
	도 8 <태조 금보>, 1683년, 금속에 도금, 전체 높이 7.3cm, 국립고궁박물관	도 9 <중종비 단경왕후 금보>, 1739년, 금속에 도금, 전체 높이 8.1cm, 국립고궁박물관

3. 새로운 양식의 창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천약의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최천약이 다음과 같은 양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조성인으로 참여했던 1713년 옥보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713년 존숭도감은 옥보를 조각하기 위해 처음으로 ‘옥보조성인’이라는 직급이 만들어진 사례로 이 도감에서 제작된 옥보 4과는 4명의 조성인이 협업하여 제작했다(표 8).⁴⁶ 바로 전시기에 제작된 1696년 <경종비 단의왕후 옥인>(도 10)과 비교했을 때 얼굴과 몸통, 귀갑의 형태 등에서 완전히 달라진 조형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⁴⁶ 1713년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의 기록에는 옥보 조성인 4명과 옥장 8명이 함께 옥보 4과를 제작했다. 이때 옥보조성인들이 각각 옥보 1과씩을 조각하고, 옥장 2명당 옥보 1과를 연마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 표 4 〉 최천약이 제작·감독한 옥보의 시기별 양식 변화

최천약제작 이전	최천약이 처음 제작에 참여	최천약 전반기 직접 제작	최천약 후반기 제작 감독	최천약사망 이후
				
도 10 <경종비 단의 왕후 옥인>, 1696년, 옥, 전체 높이 9.1cm, 국립고궁박물관	도 1 세부 <숙종옥보>, 1713년, 옥, 전체 높이 11.1cm, 국립고궁박물관	도 4 세부 <숙종비인 경왕후 옥보>, 1722년, 옥, 전체 높이 10.4cm, 국립고궁박물관	도 6 세부 <숙종비인 원왕후 옥보>, 1739년, 옥, 전체 높이 10.2cm, 국립고궁박물관	도 11 <영조 옥보>, 1756년, 옥, 전체 높이 11.0cm,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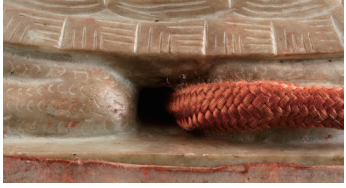



도 12 <홍처윤묘갈> 귀부, 1697년(사진: 김민규)

1713년 옥보 4과는 비석의 귀부와 유사함을 보이는데 1695년 <獻陵 신도비>, 1697년 <洪處尹 墓碣>(도 12), 1701년 <崇善君 비석> 귀부 등에서 귀부의 이마와 코의 표현, 귀의 형태 등이 옥보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713년 옥보들에서 중요한 것은 끈이 들어가는 구멍인 穿孔이 처음으로 조각된 점인데, 천공은 조선 전기와 구분되는 후기 어보의 특징이다.⁴⁷ 이전 시기에는 앞, 뒷다리 사이 공간을 모두 파내어 끈을 연결했기 때문에 별도의 문양을 조각할 공간이 없었다. 그러나 이 옥보들부터는 끈이 들어갈 구멍을 동그랗게 뚫고 그 좌우 공간에 비석의 귀부처럼 ‘十’자 형태의 물결선을 조각하였다(표 5).

47 정창윤, 「조선시대 어보 보뉴 양식 연구」, 『조선 왕실의 御寶』1 (국립고궁박물관, 2010), pp.732, 737.

〈 표 5 〉 어보 천공의 변화

	
도 13 <세조비 정희왕후 옥보> 천공부분, 1457년, 옥, 전체 높이 8.6cm, 국립고궁박물관	도 14 <숙종 옥보> 천공부분, 1713년, 옥, 전체 높이 11.1cm, 국립고궁박물관

18세기 숙종~정조대는 국가의 전례를 집중적으로 정리했다.⁴⁸ 그중 숙종대에는 다양한 왕실의 문화가 정비되었다.⁴⁹ 금보는 이미 17세기 후반부터龍頭형의 금보가 제작되기 시작하여 조형적으로 우수한 금보가 제작된 반면, 옥보의 조각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1713년 숙종의 재위 40주년을 기념하는 큰 행사에서 옥보를 제작하는 만큼 옥보 조형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양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옥보조성인’이라는 새로운 직위가 생기면서 왕실 옥장이 아닌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해 옥보를 조성했다고 생각한다. 양식의 변화는 옥보와 비석의 귀부가 같은 거북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 다른 작품에 비해 양식 공유가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천약은 1713년 옥보를 제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양식을 완성한다. 이마와 콧등 사이를 깊게 조각하여 코를 부각시키는 점이나 눈동자를 강조하고 입술의 형태, 천공의 방식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통의 문양은 전부 생략하고 귀갑의 앞쪽 연잎 조각도 없애는 등 조형 요소를 취사선택하여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생각한다.

48 김문식,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1』(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p. 14.

49 숙종은 왕실의 권위회복을 위해 다양한 왕실의 문화를 정비했다. 금보개조도감을 설치하여 그동안 종묘에 봉안되었던 어보를 일괄로 조사해 손상되었거나 전란으로 잃어버린 어보, 그동안 제작되지 않았던 어보 등을 새롭게 제작했다. 또한 종묘에 부묘되지 않았던 왕들을 추존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列聖御筆』, 『璿源系譜記略』, 『列聖御製』 등의 왕실 자료를 편찬하였고, 태조의 어진을 모사하여 남별전에 봉안하고 전란 중에 파손된 현릉의 태종 신도비를 새로 건립하였다. (김지영, 「肅宗·英祖代 御眞圖寫와 奉安處所 확대에 대한 고찰」, 『규장각』 Vol.27 (2004), pp. 58-59; 임현우, 「조선시대 어보 연구: 구 종묘 소장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p. 69; 제지현, 「1705년 금보개조도감(金寶改造都監) 제작 금보 연구」, 『문화재』 Vol.50 No.1 (2017); 김문식, 「18세기 국왕의 왕실자료 편찬과 봉모당」, 『장서각』 제40집 (2018), pp. 39-42; 김규훈, 「1695년 太宗 獻陵神道碑의 再建 연구」, 『미술자료』 No.94 (2018), pp. 64-67.

IV. 御寶 조형에 최천약(造成·看役人)이 미치는 영향

1. 최천약의 영향

최천약이 조성·간역인으로 어보 제작과 감독을 하는 동안 의궤에는 항상 장인이 기록되었고, 일부 기간동안은 함께 감독한 간역인들도 기록되어 있다. 여러 사람이 어보 제작에 참여한 가운데 최천약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옥장

최천약이 활동하는 공역에서 여러 명의 옥장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도감에서 제작해야 하는 옥보의 수에 따라 1명부터 8명까지 확인할 수 있다(표 8).⁵⁰ 최천약이 활동했던 시기 여러 옥장들과 협업하지만 다수의 빈도로 기록되는 옥장은 金太徵(金泰澄)과 李汝奉(李呂鳳)이다(표 8). 최천약은 옥보를 제작할 때 옥장의 우두머리인 邊首를 고를 수 있었으므로⁵¹ 최천약이 옥보를 제작할 때마다 김태징과 이여봉이 기록되는 것은 이들이 최천약이 선택한 옥장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살펴본 기록에 따르면 최천약이 활동하였던 전반기에 당시 옥장들은 옥보를 연마만 할 줄 알고 옥보 조각을 완성도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각을 잘했던 최천약이 옥보의 조형을 맡았다. 따라서 이 시기 옥장들은 주로 옥 연마만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최천약과 함께 전반기에 활동한 김태징이 이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여봉은 최천약이 처음 옥보를 조각했던 1713년 존숭도감에 옥장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1726년 존숭도감에서부터 다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 옥보에 사용할 옥을 연마하기도 하고 옥보를 어느 정도 조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최천약은 전반기에 옥보를 조각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후반기부터는 다양한 왕실 공역

⁵⁰ 도감에서 옥보를 제작할 때에 옥책도 함께 제작되며, 옥인은 죽책과 함께 제작된다. 표 8에서 정리한 도감의 경우 옥보와 옥책이 각각 다른 방에서 제작되었으므로 옥보를 제작한 방에서의 옥장만을 정리했다. 따라서 이 옥장들은 옥책을 제작했던 장인과는 별도의 장인임을 밝혀둔다.



⁵¹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下, 稟目秩, 壬申(1752) 3월 초4일
“一本房所掌 玉印贈玉造成之役, 萬分時急, …使別看役崔天若及玉匠邊首擇取以來, 何如? 堂上手決內, 依施”

에 참여하게 되고 많은 역사를 겸업한다. 후반기에 최천약은 감독의 역할로 장인을 지휘하는데, 이 시기 옥장은 최천약의 감독 아래 어느 정도 옥보의 외형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1740년 옥장이 옥을 다듬다가 거북의 발에 흠집이 생겨 옥을 새로 다듬었다⁵²는 기록은 거북의 발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옥장들이 어느 정도 거북의 외형을 완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성인과 간역인

최천약이 조성인으로 참여하면 옥장이 달라도 항상 같은 양식의 옥보가 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제작된 1722년 <숙종비 인현왕후 옥보>(도 15)와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도 16)는 조성인은 최천약, 옥장은 김태징과 金永甲, 金振江이다. 각각 다른 옥장이 옥보 2과의 제작에 참여하였지만 양식이 동일한 것이 보인다(표 6).

〈표 6〉 造成人 최천약, 다른 玉匠이 제작한 옥보 양식 비교

造成人	雕琢篆刻人崔天若	雕琢篆刻人崔天若
玉匠	金太澄, 金永甲	金振江
사진		
	도 15 <숙종비 인현왕후 옥보>, 1722년, 옥, 전체 높이 10.2cm, 국립고궁박물관	도 16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1722년, 옥, 전체 높이 10.1cm, 국립고궁박물관

반대로 같은 장인이 참여하더라도 조성·간역인이 달라지면 옥보의 조형이 변화한다. 1718년 <경종비 단의왕후 옥인>(도 2)과 <경종비 선의왕후의 옥인>(도 3)은 옥장 김태징과 崔後泰(崔厚太)가 모두 참여했음에도 조성인 최천약과 이경하의 양식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당시 옥장 보다는 조성인이 옥보 조형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⁵²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下, 二房儀軌, 庚申(1740) 윤 6월 28일
“…亦以玉匠四名, 達宵治玉, 而玉匠及募軍明火次牛脂二升, 既已取用, 緣由, 稟 堂上手決內, 依”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천약은 후반기에 간역인으로 감독을 담당했던 시기 여러 간역인들과 함께 어보를 제작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제작된 어보들은 최천약의 후반기 양식이 나타난다. 이 양식은 최천약이 혼자 감독했던 <진종비 효순왕후 옥인>(1735)(도 5)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최천약과 함께 많은 간역인들이 어보 제작에 참여하여도 최천약이 혼자 감독했던 <진종비 효순왕후 옥인>의 양식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최천약이 어보 제작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또 주목할 점은 연이어 역사를 담당해오던 최천약이 단 한 번 옥보를 제작하는 공역에서 빠진 적이 있는데, 당시 영조는 최천약이 늙었으니 대신 변이진과 현덕룡에게 옥보의 조형을 담당하게 하라고 했다.⁵³ 따라서 1747년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도 17)는 변이진이 간역을 하고 현덕룡이 조각을 맡았는데⁵⁴ 최천약이 제작에 참여했던 옥보와는 조각의 완성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꾸준히 역사를 담당하며 동일한 양식의 어보를 제작해왔던 최천약의 부재가 옥보 조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옥보의 조형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자 바로 다음 역사인 1751년 인원왕후존숭도감에서 최천약은 다시 변이진, 최진강과 함께 ‘옥책옥보완조인’으로 간역을 맡아 옥보 조각을 감독하여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도 18)를 제작했는데 이 옥보는 최천약이 감독했던 옥보와 양식이 유사하게 나타난다(표 7).

〈표 7〉 최천약의 감독 참여 여부에 따른 옥보 양식 비교

看役人	玉册玉寶完造人 卞爾珍, 金夏鼎, 玄德龍	玉册玉寶完造人 崔天若, 卞爾珍, 崔震崗
玉匠	李呂鳳, 韓老味, 李善才, 林萬齡	李呂鳳, 李善才, 金相文
사진		
	도 17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1747년, 옥, 전체 높이 10.7cm, 국립고궁박물관	도 18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1751년, 옥, 전체 높이 10.2cm, 국립고궁박물관

3) 금보장

최천약과 함께 협업했던 금보장은 李弘成과 朴泰亨이다. 최천약은 금보 제작의 감독을 4번 했는데 함께 협업했던 금보장은 1730년에는 보장 이홍성·黃時傑, 1739-1740년에는 이홍성·박태형, 1753년에는 박태형·表成采 등과 함께 금보를 제작했다. 따라서 최천약 감독 시 주요 금보장은 이홍성과 박태형으로 볼 수 있는데, 1740년 효종가상시호도감에서는 이홍성과 박태형이 금보 제작에 있어 숙련된 장인이었던 듯 訓局에 요청하기를 금보를 주조하여 조각하는 일이 매우 특별하니 다른 장인을 보내지 말고 꼭 이홍성과 박태형을 보내라고 기록하고 있다.⁵⁵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시기 금보는 장인의 보수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장인의 양식이 두드러지는 금보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최천약이 후반기에 처음으로 금보 제작을 감독하며 최천약의 양식으로 금보를 변화시켰고, 1739년 <중종비 단경왕후 금보>(도 9)를 기점으로 최천약이 감독한 옥보와 금보의 양식이 동일해졌다. 이는 이홍성과 박태형이 금보를 잘 만드는 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보장의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최천약의 양식이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⁵³ 『承政院日記』 원본 1012책, 英祖 23년(1747) 1월 22일

“上曰, 嶺伯先爲退出, 戶判復入. 始炯在戶外, 入伏達曰, 治玉似急, 崔天若方爲西路僉使, 馳驛召之, 何如? 上曰, 天若老矣. 既有卞以珍, 又有宣德龍, 今番則不必召天若矣.”

⁵⁴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上, 尊崇都監都廳儀軌, 丁卯(1747) 2월 20일

“上曰, 今番寶, 誰刻之耶? 爾珍曰, 玄德龍, 細刻之矣. 上問尙迪, 以渠則爲何事? 尙迪問爾珍曰, 汝則爲何事耶? 爾珍曰, 臣則凡事看檢矣. 上曰, 然則玄德龍, 其能繼之耶? 爾珍曰, 素有才矣. 三提調及爾珍, 先爲退出.”

⁵⁵ 『孝宗加上諡號都監儀軌』, 都廳儀軌, 庚申(1740) 6월 초7일

“本都監謄錄付 寶匠 李弘成·朴泰亨 鎖鑰匠 李仁蕃 起送事, 捧甘爲有如其乎, 卽者貴都監甘內, 謂以有頃, 或以他匠人代送爲跡, 或以鳥銃之役, 赴役於軍器寺 是如爲有臥乎所, 本都監事體, 與他自別從不喻, 金寶鑄刻之役, 萬分時急是遣, 況且寶役, 尤爲自別, 則今以有頃代送他匠, 殊甚未妥, 到關卽時, 同寶匠 李弘成 朴泰亨 李仁蕃等及其他匠手等, 依前捧甘, 星火起送, 以爲及時赴役之地, 宜當向事.”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장인 개개인의 참여 보다 조성·간역인에 따라 어보의 조형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천약의 경우 다른 여러 명의 간역인들과 함께 어보를 제작 감독하여도 최천약의 양식으로 어보가 조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최천약은 협업한 장인, 간역인에 구애받지 않고 어보의 조형을 철저히 통제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천약이 어보 공역에 참여하였던 40년의 기간 동안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꾸준히 양식이 동일한 어보들이 제작된다는 것은 현전하는 어보 전체를 두고 볼 때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최천약 이후 造成·看役人 활동

1755년 최천약이 사망한 이후 어보 제작을 감독하던 간역인의 직책은 더이상 확인할 수 없고 명칭이 別看役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천약 사망 직후인 1756년 인원왕후숙빈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에서는 4과의 어보를 제작했는데, 제작 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역인이 별간역으로 기록되었다.⁵⁶ 이때 별간역으로 참여한 최진강과 김하정은 모두 이전에 최천약과 함께 어보 조성을 감독했던 간역인이다(표 8). 이 도감에서 제작한 옥보는 최천약이 활동했던 시기의 옥보와 비교해 최천약의 양식이 일부 남아있지만 조각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의 도 11).

따라서 18세기 초반에는 玉寶造成人, 玉印篆刻人으로 기록되던 어보 제작자가 玉印竹冊看役人, 玉印竹冊看檢人으로 어보 제작의 감독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변화했다가 1752년에는 玉印竹冊別看役人, 1753년 玉冊金寶別看役으로 별간역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표 8). 이후 別看役으로 고정되어 의궤에 기록되는데 20세기 초 대한제국기까지 지속되었다. 별간역은 주로 새로운 기술적 창안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해서 일반 장인들에게 맡기기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직책이다.⁵⁷ 따라서 이때부터는 어보 뿐 아니라 도감에서 제작하는 전체 의물의 제작을 감독하는 성격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별간역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후 어보를 제작한 도감에서 활동한 丁遇泰는 30년간 왕실 건축, 현릉원 공사, 화성 성역 등에 관여했다.⁵⁸ 어보를 제작하는 도감에서는 1783년, 1795

년 정순왕후장헌세자혜빈존호도감 등에서 별간역으로 활동했는데⁵⁹ 그의 행보가 주로 건축 분야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도감에서 제작되는 모든 의물을 감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한다.

〈 표 8 〉 18세기 전반 최천약이 참여한 도감과 장인 목록

순번	의궤명	연대	造成·看役人		匠人	
			명칭	이름	분야	이름
1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1713	玉寶造成人	訓練院習讀金繼興, 訓練都監旗牌官李慶夏, 禁衛營別軍官白奎燦, 武人閑良崔天若	玉匠	李起致, 李呂奉, 李以進, 李允石, 李近石, 劉守成, 金次建, 朴北間
2	端懿嬪禮葬都監儀軌	1718	玉印造成人	東萊武人閑良崔天若	玉匠	方良說, 金泰徵, 崔後泰, 金振江
3	愍懷嬪復位宣謚都監儀軌	1718		盧起俊	玉匠	金泰徵, 方良說
4	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	1718	玉印看刻人	李景夏	玉匠	金太徵, 金以宗, 崔厚太
5	肅宗國葬都監儀軌	1720			寶匠	表時才, 金成元
6	英祖王世弟冊禮都監儀軌	1721	玉印造成	閑良崔天若	玉匠	金太徵(內司), 李允石, 姜二俊, 金永甲(以上私匠)
7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祔廟都監儀軌	1722	雕琢篆刻人	東萊武人閑良崔天若	玉匠	金太澄, 金永甲
8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1722	雕琢篆刻人	東萊武人閑良崔天若	玉匠	金振江
9	端懿王后宣懿王后冊禮都監儀軌	1722			金寶匠	表時才(訓局), 劉興世(御營廳)
10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1725	玉印造成人	閑良崔天若	玉匠	金太徵(內需司), 姜二後(私匠)

2019), pp. 189-190.

⁵⁹ 『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軌』(1783) “尊號都監別單 別看役 前僉使 丁遇泰, 嘉善 尹東瑀, 前五衛將 具善德, 副司果 姜世重”; 『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軌』上(1795) “尊號都監別單 別看役 前縣監 丁遇泰, 前五衛將 姜世重, 前主簿 金啓重.”

순번	의궤명	연대	造成·看役人		匠人	
			명칭	이름	분야	이름
11	景宗國葬都監儀軌	1725			寶匠	表時才, 金成元
12	仁元王后宣懿王后 尊崇都監儀軌	1726	玉寶篆刻別抄	武士崔天若	玉匠	李春永, 李汝奉, 林哲金(私匠)
13	景宗端懿王后祔廟都監儀軌	1726		崔天若	玉匠	金太徵(私匠), 孫必順(私匠)
14	貞聖王后冊禮都監儀軌	1726			金寶匠	表時才, 劉興世
15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	1727		崔天若	玉匠	姜二俊, 李春榮, 李汝鳳(以上私匠)
16	孝章世子禮葬都監儀軌	1729	玉印造成及誌 石表石看檢造 成人※	折衝崔天若		장인기록없음
17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1730		崔天若	寶匠	李弘成(訓局), 黃時傑(內司)
18	賢嬪玉印造成都監儀軌	1735	玉印看刻人	前僉使崔天若	玉匠	姜益濟(私匠), 李汝鳳(私匠)
19	思悼世子冊禮都監儀軌	1736	玉印玉軸造成 及竹冊玉印 看刻人	前同知崔天若, 折衝卞爾珍	玉匠	李汝鳳, 姜益齊, 林哲守(等以上私匠)
20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1739	玉冊玉寶 完造人	嘉善崔天若, 折衝卞爾珍	玉匠	李呂奉, 金德奉, 李奉世, 李有培 (等以上私匠人)
21	端敬王后 復位祔廟都監儀軌	1739	謚冊玉冊 金寶完造人	嘉善崔天若, 折衝卞爾徵	寶匠	李弘成, 朴泰亨 (訓局)
22	孝宗加上謚號都監儀軌	1740	玉冊金寶完造人	嘉善崔天若	寶匠	朴太亨(訓局), 李弘成(訓局)
			玉冊金寶維結人	折衝卞爾珍		
23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 尊崇都監儀軌	1740		嘉義崔天若, 天水僉使卞爾珍	玉匠	李呂奉, 李貴永, 韓老味, 盧大鳳, 金破面, 金舜世, 金德鳳
24	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	1744	玉印造成	僉使崔天若, 閑良 玄德龍	玉匠	金德奉(私匠)

순번	의궤명	연대	造成·看役人		匠人	
			명칭	이름	분야	이름
25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1747	玉冊玉寶完造人	前僉使卞爾珍, 前萬戶 金夏鼎, 業武 玄德龍	玉匠	李呂鳳, 韓老味, 李善才, 林萬齡 (以上私匠)
26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1751	玉冊玉寶完造人	前僉使崔天若, 卞爾珍, 閑良 崔震崗	玉匠	李呂鳳, 李善才, 金相文(以上私匠)
27	懿昭世孫冊禮都監儀軌	1751	玉印竹冊看役人	前僉使崔天若, 卞爾珍, 前萬戶 金夏鼎, 閑良 崔鎮崗	玉匠	李汝鳳, 金尙文, 李善才(以上私匠人)
28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1751	玉印竹冊看檢人	前僉使崔天若, 許沙僉使卞爾珍, 前萬戶 金夏鼎, 副司勇 房應文	玉匠	李汝奉, 李善才, 崔弘良, 李先福, 田自昌, 李奉徵, 金興大, 李再一 (以上私匠)
29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 尊崇都監儀軌	1752	玉寶看造人	前僉使崔天若, 副司勇 房應文, 閑良 崔鎮崗	玉匠	李汝奉, 金振江, 李善才, 申得 (以上私匠)
			玉冊看造人	折衝卞興瑞, 前萬戶 金夏鼎, 閑良 金慶裕		
30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1752	玉印竹冊 別看役人	前僉使崔天若, 折衝卞興瑞, 副司勇 徐克悌, 閑良 金慶裕	玉匠	李汝鳳, 金三元, 趙萬載, 李善才, 李善福
31	肅宗仁敬王后 仁顯王后仁元王后 加上尊號都監儀軌	1753	玉冊金寶 別看役	蒜山別將崔天若, 嘉善 金慶裕, 折衝 徐克悌, 閑良 許奎, 崔鎮崗	寶匠	朴太亨, 表成采, 鄭順興, 李守根, 李喜得(以上訓局), 陳再起, 李啓昌, 徐正漢(以上尙衣院)

※ 승정원일기

V. 맺음말

최천약은 1713년부터 1753년까지 왕실 공역에 참여하면서 御寶, 王陵과 園墓의 석물, 악기, 자명종, 천문기기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감독했다. 최천약의 조각을 본 西平君 李橈(1687~1756)는 “최천약의 재주는 수백 년 안에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이다”하며 최천약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⁶⁰ 최천약은 특히 어보 공역에서 “조각의 묘수”라 불리며 연이어 역을 담당하여 18세기 전반 어보의 양식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장인과 달리 武人으로 처음 왕실 공역에 참여하여 이후 정2품 資憲大夫까지 올랐고, 영조로부터 영원히 급료를 지급받는 대우를 받을 정도로 어보 제작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천약은 활동 전반기에 어보를 직접 제작하는 조성인으로, 후반기에는 어보 제작을 감독하는 간역인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전반기, 후반기로 양식이 나타나는데 이 양식은 최천약이 처음 어보 조성인으로 참여한 1713년 존숭도감에서 제작한 옥보의 조형 요소를 가감해 본인 양식으로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함께 협업한 장인들과 간역인들이 있었음에도 최천약이 참여한 공역에서는 항상 그의 어보 양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최천약 이전 시기에는 어보의 양식이 장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최천약의 활동 시기에는 그가 어보의 양식 변화를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왕실 어보의 제작에 있어 장인 이외에 조성·간역인이 등장하는 예는 18세기 전반이 유일하여 최천약이 어보 제작과 양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한 사례이다. 어보 조성·간역인이라는 명칭은 1752년부터 별간역으로 기록되고 최천약이 사망한 이후에는 별간역으로 고정되어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진다. 최천약의 활동 당시에는 특정한 의물을 조성, 감독하던 역할에서 확장되어 도감에서 제작하는 의물 전체를 감독하는 역할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초기 별간역 제도의 확립에 있어 최천약의 활동 과정이 어느 정도 선례를 만들었다고 짐작한다.

어보는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물 중 하나로 왕실의 인사와 동일시 되어왔다. 그러한 어보를 40년 동안 최천약이 제작과 감독을 맡으면서 어보의 조형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천약이 구현한 작품의 예술성이 당시 왕실의 미감과도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⁶⁰ 『備邊司謄錄』, 英祖 6년(1730) 10월 6일

“...正使橈曰, 既發言端, 故臣且仰達矣, 蓋崔天若之才, 數百年來不可復得者矣...”

*주제어(key words)_조선 왕실 어보(朝鮮 王室 御寶, Joseon Dynasty Royal Seal), 18세기(18世紀, The 18th century),

최천약(崔天若, Choi Cheon-yak), 조성인(造成人, Producer), 간역인(看役人, Director), 장인(匠人, Senior craftsman)

■ 투고일 2019년 8월 26일 | 심사개시일 2019년 9월 9일 |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24일 ■

참고문헌

1. 사료

『景宗國葬都監儀軌』

『景宗端懿王后祔廟都監儀軌』

『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

『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端懿嬪禮葬都監儀軌』

『端懿王后宣懿王后冊禮都監儀軌』

『愍懷嬪復位宣諡都監儀軌』

『備邊司謄錄』

『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

『思悼世子冊禮都監儀軌』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肅宗國葬都監儀軌』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祔廟都監儀軌』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承政院日記』

『英祖王世弟冊禮都監儀軌』

『仁元王后宣懿王后尊崇都監儀軌』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40, 1752)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22, 1739, 1747, 1751)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懿昭世孫冊禮都監儀軌』

『貞聖王后冊禮都監儀軌』

『朝鮮王朝實錄』

『賢嬪玉印造成都監儀軌』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孝宗加上諡號都監儀軌』

2. 한국어 문헌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의 御寶』1, 2010.

김규훈, 「1695년 太宗 獻陵 神道碑의 再建 연구」, 『미술자료』No.94, 2018.

김동욱, 「정조·순조연간 관영공사에서 別看役 丁遇泰의 조영활동」, 『건축역사연구』Vol.16 No.3, 2007.

김문식, 「18세기 국왕의 왕실자료 편찬과 봉모당」, 『장서각』제40집, 2018.

김민규, 「조선 18세기 조각가 최천약(崔天若) 연구」, 『문화재』Vol.46 No.1, 2013.

_____, 「현릉원 석물 조각의 특징」, 『천하명당 수원 현릉원』, 수원화성박물관, 2019.

김지영, 「肅宗·英祖代 御眞圖寫와 奉安處所 확대에 대한 고찰」, 『규장각』Vol.2,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I』, 2005.

안대회, 「영조시대 기술자 최천약」, 『문헌과 해석』Vol.37, 문헌과 해석사, 2006.

_____, 「자명종 제작에 삶을 던진 천재 기술자」, 『벽광나치오』, 휴머니스트, 2011.

이종봉, 「조선후기 東萊人 崔天若의 생애와 과학기술」, 『지역과 역사』제43호, 2018.

임현우, 「조선시대 어보 연구 : 구 종묘 소장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정창운, 「조선시대 어보 보뉴 양식 연구」, 『조선 왕실의 御寶』1, 국립고궁박물관, 2010.

제지현, 「朝鮮時代 17-18世紀 王室 御寶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_____, 「1705년 금보개조도감(金寶改造都監) 제작 금보 연구」, 『문화재』Vol.50 No.1, 2017.

최천약은 1713년부터 1753년까지 왕실 공역에 참여하면서 御寶, 王陵과 園墓의 석물, 악기, 자명종, 천문기기 등 다양한 작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감독했다. 최천약은 특히 어보 공역에서 “조각의 名人”라 불리며 연이어 역을 담당하여 18세기 전반 어보의 양식 변화를 이끌었다.

최천약은 활동 전반기에 어보를 직접 제작하는 조성인으로, 후반기에는 장인을 이끌며 어보 제작을 감독하는 간역인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전반기-후반기 양식이 나타나는데, 함께 협업한 장인과 간역인들이 있었음에도 최천약이 참여한 공역에서는 항상 그의 어보 양식이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시기에는 어보의 양식이 장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최천약의 활동 시기에는 그가 어보의 양식 변화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왕실 어보의 제작에 있어 장인 이외에 어보 조성-간역인이 등장하는 예는 18세기 전반이 유일하여 최천약이 어보 제작과 양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한 사례이다. 40년 동안 최천약이 어보의 제작과 감독을 맡으면서 조형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천약이 구현한 작품의 예술성이 당시 왕실의 미감과도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Choi Cheon-yak's Production and Supervision of Joseon Royal Seals

Je, Ji-hyeon*

Choi Cheon-yak undertook projects commissioned by the royal household of Joseon from 1713 to 1753, crafting a variety of items such as royal seals, stonework in the royal tomb complex, musical instruments, alarm clocks, and astronomical equipment, or supervising the production of those items. In the crafting of royal seals, in particular, Choi spearheaded the stylistic transformation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through successive participation in the projects that earned him the epithet “the master of sculpture.”

For the first half of his career, he partook in the actual making of royal seals. Past halfway through his career, he became a director, supervising the production of royal seals at the top. His career track as such results in two different styles for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That said, his signature style of royal seals persisted despite the likelihood that he worked under the supervision of other directors or collaborated with other producers. This stylistic consistency suggests that it was Choi who led the stylistic changes of royal seals when he was active. Choi's influence on both the production and the stylistic transition makes an exceptional case, for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marks the only time when producers and directors took charge of the crafting of royal seals. Prior to this period, the stylistic decision was made by senior craftsmen. It is likely that he could dictate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royal seals because the artistic quality of his work accorded with the aesthetic sense of the royal household.

* Ph.D candidate in Art history Dongguk University